

No.47

Japan Weekly Digest

2010. 8. 9 ~ 8. 15

특집 : 일본경기 진단과 향후 전망

- 거시경기 진단
 - 경기회복세의 둔화

- 향후 경기전망
 - 회복세 둔화로 정체국면 진입

- 주요 경제 환경 리뷰
 - 환율: 1달러 84엔, 15년 만에 최고치 기록
 - 상공회의소조사: 업황·경기전망 소폭 개선
 - 금리: 정책금리 현상유지, 장기금리 하락추세
 - 대외: 대외리스크 증가
 - 경제주체별 동향
 - 기업: 신흥국 판매증가로 수익 증가
 - 가계: 고용환경 개선 불투명
 - 정부: 가을 이후 정부지출 축소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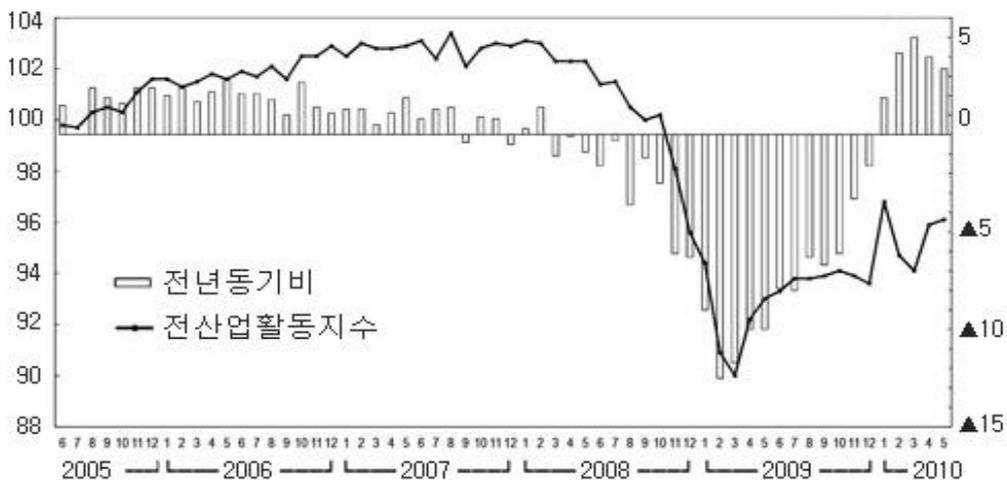
산업 한일경제협회
Korea-Japan Economic Association

- ※ 자료제공 : (재)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일본지식정보센터
- ※ 본 자료는 협회 홈페이지(<http://www.kje.or.kr>)에서 PDF파일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
있사오며, 본 자료를 이메일로 받기를 희망하시는 회원께서는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(Tel.02-3014-9888)

□ 거시경기 진단

- 경기회복세의 둔화
 - 일본경제는 회복을 지속하고 있으나, 최근 회복속도가 둔화되는 추세로 경제활동수준이 잠재성장률을 크게 밑돌고 있다는 평가
 - 4~5월 전산업활동지수, 전생산공급지수 증가폭이 1~3월에 비해 크게 둔화되고, 6월 광공업생산지수가 4개월 만에 마이너스로 떨어짐
- 대외적으로는 아시아지역의 수출 증가폭이 둔화되고, 자원가격의 상승 등으로 대외교역환경이 크게 악화되고 있음
- 기업부문에서는 생산 활동 증가가 둔화되고는 있으나 기업수익 자체는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음
 - 재고가 조금씩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, 설비투자가 바닥에서 조금씩 반등하고 있음
- 가정 부문에서는 고용환경과 소득개선 면에서 정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나, 소비성향이 조금씩 살아나면서 개인소비를 지탱하고 있음
 - 주택부분의 침체, 정부의 공적수요 감소, 세수 증가 등 소비침체 요인이 있어 중앙은행(日本銀行)은 조심스럽게 금융완화정책을 펴고 있음
- 소비자물가의 하락폭을 줄어들이고 있으나 자원가격의 상승 등으로 기업 물가가 상승하고 있음

전산업활동지수 추이 (2005년=100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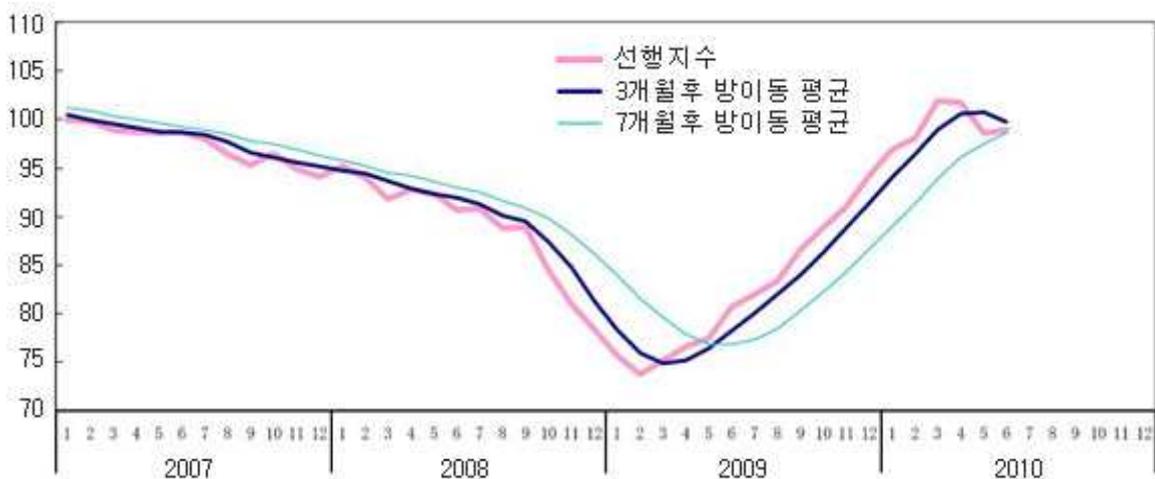
출처: 경제산업성

□ 향후 경기전망

- 회복세가 주춤하고 정체국면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
 - 국제경제의 위축에 따라 수출과 생산이 감소하고, 특히 9월 이후 내구재 구입지원책이 중단됨에 따라 내수침체가 예상되고 있음
 -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수입과 투자심리는 회복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나 생산 정체와 무역환경 악화로 인해 증가폭은 크지 않을 전망
 - 미즈호종합연구소에 따르면 설비투자가 완만하게 증가하는 수준
 - 9월말로 친환경자동차 보조금 지급이 중단됨에 따라 자동차판매가 급격히 위축되어 관련 산업에 큰 악재로 작용할 전망
 - 경기를 대변하는 광공업생산은 3/4, 4/4분기 연속 감소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등 연말이 가까워질수록 국내경기의 정체가 가시화될 수 있음
- 2010년도 일반회계예산에 ‘경제위기대응·지역 활성화 예비비’가 1조엔, ‘비특정의결 국고채무부담행위한도액’ 1조엔 계상되어 있어 별도의 추가경정예산을 꾸리지 않더라도 2조엔 규모의 경기대책 활용이 가능함
 - 고용관련 보조금과 가전 에코 포인트 등 기존정책과 함께 어떤 형태로 경기대책이 추진되는가가 향후 주목해야할 포인트

경기선행지수 추이

(2005년=100)



출처: 내각부

□ 주요 경제 환경 리뷰

- 환율: 1달러 84엔, 15년만의 최고치 기록
 - 11일 장중 1달러 84엔72전까지 치솟으면서 1995년 7월 이래 15년만의 최고치를 기록
 - 미국의 경기둔화·장기금리 인하에 따른 '日·美간의 금리차 축소'가 엔을 사고 달러를 파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음
 -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80엔대 중반에 안착할 경우 일본경제에 치명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
 - 재무성은 현 상황에 대해 우려는 표하고 있으나 정부개입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. 한편에서는 79엔 정도가 되면 정부가 개입하지 않겠냐는 시각
 - 나오시마 경산상은 '일본 기업이 매우 큰 환율리스크에 노출되었다'면서 기업에 대한 엔고 피해를 조사하는 등 대책마련을 지시
 - 조사결과에 따라 정부가 보증하는 저금리융자 등 지원여부를 판단할 예정
 - 엔고는 수입품 가격의 인하로 이어져 소비자에게 이점도 있으나, 최근 회복추세에 있는 수출산업에 큰 위협요인으로 작용
 - 엔고가 지속될 경우 국내공장 해외이전→ 고용감소→ 경기침체의 악순환 우려
- 일본상공회의소의 상공회의소LABO(조기경기관측) 업황은 지난달과 비교했을 때 거의 같은 수준이며, 향후 전망에서는 폭은 적으나 7개월 연속 마이너스치가 축소되는 등 개선되고 있음
 - 7월 소산업합계 업황DI가 $\Delta 39.7$ (전월비+0.8p)로 전월과 거의 같은 수준이며, 선행지수는 $\Delta 34.7$ (전월비+0.6p)로 7개월 연속 상승
 - 408개 상공회의소에서 업황, 매출, 채산, 구입가격, 종업원 현황 등을 2638업종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
 - 기업 일선에서는 엔고와 개인소비를 지탱해 왔던 친환경자동차 보조금 기간만료, 원자재가격 상승, 공공공사 감소 등을 우려하는 상황
- 정책금리는 현상유지(7월 0.1% 유지 결정), 장기금리(신발행10년채이자)는 7월초 기술적 반등에 이어 월말 미국경기 악화에 따라 하락추세

□ 대외 환경

- 세계경제는 회복을 지속하고 있으나 미국의 경기악화 조짐을 시작으로 그 추세가 꺾이고 있는 상황
 - 對유럽 수출이 호황을 보이고 있으나 중국의 고정자본투자를 중심으로 한 성장세 둔화, 미국 경기악화 조짐 등 경기회복세가 한풀 꺾어질 전망
 - 아시아를 중심으로 한 수출 역시 세계경제 회복이 더디지면서 둔화 추세
 - 일부 자원가격의 상승조짐, 엔고 등 대외무역환경이 큰 폭으로 악화되고 있으며, 이러한 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
 - 무역수지흑자는 증가추세이나, 엔고와 세계적 금리인하, 수출증가 둔화 전망 등 더 이상의 흑자 증가추세를 유지하기는 어려운 상황

□ 경제주체별 동향

- 기업: 신흥국 판매증가를 주요인으로 수익이 늘고 있으나 엔고와 중국, 미국 등 세계경기불안 등으로 하반기 실적계획을 낮추고 있는 상황
- 가계: 아동수당 등 소득지원책과 급여가 조금 증가하고 있으나 리먼 쇼크 당시를 밀도는 고용환경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당분간 큰 폭으로 회복되기는 어려울 전망
- 정부: 1조엔에 달하는 작년도 미집행분이 상반기 정부지출을 지탱해 왔으나, 2010년도 예산이 대폭 삭감됨에 따라 가을 이후 지출이 크게 줄어들 전망. 또한, 세수는 기업수익회복을 배경으로 증가 추세

□ 참고 문헌

- 1) 미즈호일본경제정보, 2010. 8, 미즈호종합연구소
- 2) 일본 경제전망, 2010. 8, 일본종합연구소
- 3) 경제산업성 · 내각부 · 재무성 · 총무성 HP
- 4) 일본은행 · 일본상공회의소 HP